
	<h1> <b> 보도참고자료 </b> </h1>		<b>수도권매립지 종료</b>
	배포일자	2021년 6월 28일(월) 총 3매	 환경특별시 인천
담당 부서	시민정책담당관실	담당자	• 시민정책팀장 김두현 ☎440-2181 • 담당자 최재필 ☎440-2183
사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	

## ‘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정책 시민인식조사’ 결과 관련 보도참고자료

### □ 조사결과

#### ① 환경문제 관심도

- ‘환경특별시 인천’ 선포 및 **자원순환정책 대 전환 추진**에 대한 인식
  - 매우 바람직하다(46.1%), 바람직한 편이다(48.3%)
  - 시의 자원순환 정책 방향에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94.3%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 시민들은 **시의 환경정책에 적극 동의**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
#### ② 수도권 매립지 종료 정책

-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인천에 매립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?
  - 문제가 있다(86.9%)
  - **수도권의 쓰레기를 그동안 인천시가 떠안아 온 것에 대해 대다수 인천 시민들이 문제의식**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

○ 수도권 매립지 종료사실 인지여부

- 수도권 매립지를 3-1공구를 끝으로 종료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매우 잘 안다(23.0%), 아는 편이다(25.2%), 들어는 보았다(26.6%), → 알고 있다(74.8%)
- 지난 해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조사(알고 있다 37.9%, '20년 4월)에 비해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함. 시의 지속적인 정책 홍보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.

○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 서울, 경기의 지속 사용에 대한 시민 의견

- 30년 이상 견뎌왔던 인천시민의 고통이 연장되므로 2025년에 종료해야 한다(83.4%)
- 오랜 기간 동안 수도권 쓰레기를 인천에 매립해 온 탓에 감당해 온 시민 불편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아져 있음을 알 수 있음.

○ 수도권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정책 방향

-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, 경기도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.(49.0%)
- 이는 수도권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인천만 매립지 확보에 나설 것이 아니라 서울시, 경기도도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해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로 볼 수 있음.
-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, 경기도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들 중 78.2%가 '서울, 경기의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'고 응답하여 각 지자체별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### ③ 시의 자원순환 정책 체감도

- 지난해에 비해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어느 정도 줄였다고 생각하는지
  - 매우 많이 줄였다.(7.5%), 줄인 편이다 (37.6%)  
→ 줄였다(45.2%)
- 지난해에 비해 일회용품 사용량을 어느 정도 줄였다고 생각하는지
  - 매우 많이 줄였다(12.4%), 줄인 편이다(43.0%)  
→ 줄였다(55.3%)
  - 코로나19로 인한 자택 생활 증가로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 추세임에도 인천 시민 절반가량이 배출량 및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데 노력 해 온 것으로 조사됨. **시의 적극적인 자원순환 정책 홍보 및 캠페인 등이 상당한 효과**를 보인 것으로 보임.
- ‘비행분취’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인지도
  - 매우 잘 안다(30.7%), 아는 편이다(47.6%), 들어는보았다(17.3%),  
→ 알고있다(95.6%)
  -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**대부분의 시민이 인지**하고 있음
- 자원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
  -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는 문화 정착(44.6%),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 확충(23.4%), 재활용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(15.0%),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교육 및 홍보(14.6%)
  - 일회용품 사용을 많이 줄였다고 인식 하면서도 가장 중점적인 추진 대책으로 일회용품을 덜 사용 하는 문화 정착을 꼽았음. **자원순환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일회용품 줄이기**로 나타나 정책 방향에 참고 할 필요가 있음.